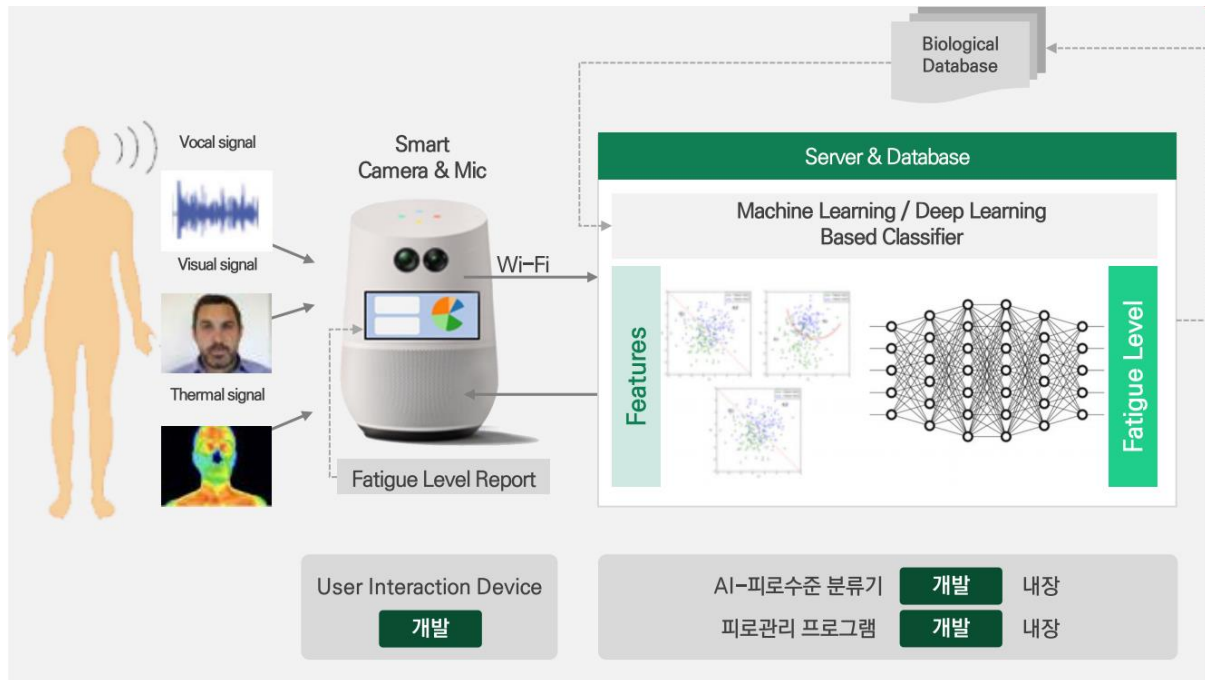


[보도자료]

바이브컴퍼니, 'AI 기반 조종사 피로도 측정 시스템' 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



<이미지 = AI 피로도 측정 시스템 개발도(예시)>

인공지능·빅데이터 전문기업 (주)바이브컴퍼니(대표 송성환, 구.다음소프트, 이하 바이브)가 조종사 같이 피로 위험도가 높은 직업군의 피로도를 측정하는 'AI 기반 조종사 피로도 측정 시스템'을 구축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.

이는 산업통상자원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가 수행하는 '2020년 민·군겸용기술개발사업'의 일환으로, 총 34억 원 규모의 사업이며 그중 바이브의 사업비 규모는 16.7억 원이다.

항공 사고에서 운항 승무원 과실 사고 중 18.6%의 원인이 조종사의 피로 때문이다. 이에 조종사의 피로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종합적 판단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.

'AI 기반 조종사 피로도 측정 시스템'이 개발되면 조종사의 피로로 인한 항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. 그간 생체정보만을 활용해 조종사의 피로도를 측정했던 것과 달리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지며, 안면 인식 및 피로 수준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낼 수 있다.



최종 사업자로 확정되면 바이브는 오는 '24년까지 ▲피로 수준 분류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구축 ▲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분석 정밀화 ▲실시간 판단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 체계를 만들게 된다.

바이브 이재용 부사장은 "바이브는 한국판 뉴딜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현재 바이브의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국책 사업을 진행 중으로, 이번 사업도 그 일환."이라며 "'AI 기반 조종사 피로도 측정 시스템' 개발을 통해 추후 조종사뿐 아니라 민간 분야의 피로 위험도가 높은 직업군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장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."이라고 말했다.